

중국의 「21세기 해상실크로 구상」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추진배경 및 개황
2.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
3. 향후 과제 및 전망

주요 내용 ●●●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构想)」을 처음 제안했음.

- 해상실크로드 구상의 추진 배경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로 인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공동체에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있음.
- 역사적으로 해상실크로드는 육상실크로드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상업·무역 교통로였음.

■ 해상실크로드 구상의 정책적 목표는 해상실크로드 연안 국가간의 무역을 장려하고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여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 기초 자원마련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실크로드 기금, 해상실크로드 은행의 설립 추진 △ 중-아세안(ASEAN)협력 프로젝트 제시 및 200억 달러 차관 제공 △ 스리랑카, 몰디브 등 인도양 연해 국가들을 순방하여 각종 협력 사업 추진 △ 중국 내 주요 지역의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

■ 향후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각 국가간의 복잡한 국제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남중국해 영토분쟁 및 인도와의 국경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경제공동체 설립 등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 해상실크로드 건설은 중국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 추진배경 및 개황

■ 중국정부는 2013년부터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构想), 이하 「구상」」을 제창하였음.

- 해상실크로드는 육상실크로드(陆上丝绸之路经济带)와 함께 ‘일대일로(一带一路)’ 건설의 중요한 한 축임.
 -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带)와 해상실크로드(一带) 경제벨트를 합친 개념임.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해상실크로드의 공동 건설을 제안하고, 해양협력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함.¹⁾
 - 해상실크로드는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泉州)에서 시작하여 지중해의 그리스에 이르는 장대한 노선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과 함께 아세안(ASEAN),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잠비아, 이집트, 터키, 그리스가 포함되며, 권역별로는 동남아시아, 인도양, 동부 아프리카 및 지중해 연안이 포함됨.

그림 1. 해상실크로드(海上丝绸之路) 노선도



주: 군청색 점선이 육상 루트, 하늘색 점선이 해상 루트임.

자료: 『CNBC』 (2014), 「 'New Silk Road' highlights China's two-speed reform」, (11월 17일)

1) 「习近平:中国愿同东盟国家共建21世纪“海上丝绸之路”」 (2013.10. 3). 『新华网』.

■ 역사적으로 해상실크로드는 육상실크로드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상업·무역 교통로였음.

-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4세기부터 형성되어 지속되다가, 당나라의 멸망을 계기로 육상실크로드가 쇠퇴하자 이를 대신할 상업·무역 교통로로 변형하였음.
- 항해술 및 선박 건조기술이 발전한 송나라 때 중국 상인들이 도자기 수출을 중심으로 해양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활발한 무역통로로 변성하기 시작하였음.
- 명나라 영락제의 재위기간 동안 이루어진 7번의 “정화의 대원정(大遠征)”²⁾(鄭和下西洋²⁾)으로 인해 해상실크로드의 변형이 절정기에 이르렀으나, 이후 명나라의 쇄국 정책으로 해상무역이 쇠퇴하면서 해상실크로드도 쇠락하였음.
- 명나라는 당시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방해했던 왜구(倭寇)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무역상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고 연안 지방의 거주민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해금(海禁) 정책’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연안 지방 주민들의 연이은 항의로 인해 일부 항구의 무역만을 허가하여 해상 무역의 명맥을 잇게 하였음.

■ 「구상」의 추진 배경은 지방간 경제적 격차로 인한 다양한 갈등 해소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공동체에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있음.

- 먼저 「구상」의 추진 배경은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된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임.
- 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 등 낙후된 서남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소수 민족들의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해양산업을 국가 지주 산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 예정임.
- 또한 중국이 소비하는 석유 원유량의 80%, 천연가스의 50%가 수입되는 말라카해협의 안전한 수송로 확보 역시 주요 추진 동기임.
- 중국 총 수출입 규모의 42.6%가 이 루트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한 수송로의 확보는 필수적임.
- 또한 주변국들이 미국 주도의 경제공동체(TPP³⁾, TTIP⁴⁾)에 참여하여 중국이 아시아 역내 경제 질서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재균형(Rebalancing)전략을 바탕으로 중국 주변국들의 경제협력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중국을 견제하려고 함.⁵⁾

2) 명나라 황실의 환관이었던 정화(鄭和)가 영락제의 지시로 1405년부터 1430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중국 남부에서 동남아시아, 인도양 및 동부 아프리카 연안에 이르는 대원정(大遠征)을 감행한 사건. 이 원정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 파견된 명나라 함대들은 항해 중 정박하는 지역들의 문화 교류와 무역을 촉진시켰음.

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4)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양바오쥔(杨保筠)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동방조보(东方早报)』 기고문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공동 번영이라는 「구상」의 성격상 중국과 연안 국가들의 대등한 관계를 기초로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⁶⁾

■ 「구상」의 정책적 목표는 해상실크로드에 참여하는 국가간의 무역을 장려하고 각국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것임.

-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 △ 국가간 정책조율(政策沟通) △ 인프라 정비(道路联通) △ 무역 활성화(贸易畅通) △ 무역통화 기제 확립(货币流通) △ 민간교류 활성화(民心相通) 등을 제시함.
- 또한 ‘3대 주요방침’, ‘5대 기본원칙’, ‘7대 그룹’을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구체화하고 있음.
 - 3대 주요방침: 연안 국가 간 유대감 형성, 경제무역 협력 추진, 인문(人文)교류 활성화
 - 5대 기본원칙: 공동추진, 상호공영(互相公營), 일관성과 조화(和谐)추구, 관·민(官民)합작, 시장원리부합
 - 7대 그룹: ASEAN 자유무역지대(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협력연맹(南亚区域合作联盟, 인도양),⁷⁾ 해안아랍국가협력위원회(海湾阿拉伯国家合作委员会, 아랍지역), 남아프리카 관세동맹(南部非洲关税联盟, 아프리카),⁸⁾ 동아시아 화폐연맹,⁹⁾ 남태평양 지역 국가군(群), 태평양연맹(Pacific Alliance, 남미)

표 1. 해상실크로드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실행방안	주요내용
정책조율 (政策沟通)	- 각국이 상호간에 경제발전 전략과 정책을 교류하여 연계함으로써, 지역협력의 틀 마련 -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기제를 마련
인프라 정비 (道路联通)	- 중국과 기타 국가들을 연결하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함. - 인프라를 통해 해운(海運)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국가간 소통을 원활히 함.
무역 활성화 (贸易畅通)	- 각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상호간에 무역 및 투자를 간편하게 하여 연안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이끌어내어 공존공영을 이룸.
무역통화 기제 확립 (货币流通)	- 무역 활성화에 필수적인 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 -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금융기구를 창설하여 가입국들에게 무역 자본을 제공하여 금융리스크를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제고
민간교류 활성화 (民心相通)	- 연안 국가들 사이에 다(多)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상호간에 우의를 다지도록 주선

자료: 본문 내용 정리.

5) 『和讯网』.2015. 「美国为何对中国的“一带一路”疑虑重重?」. (1月 22日)

6) 『东方早报』.2014. 「“21世纪海上丝绸之路”并非要恢复“华夷秩序”」. (5月 6日)

7)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8)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SACU).

9) 유로(EURO) 화폐와 유사한 동아시아 기축통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체, 현재는 논의 단계임.

2.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

가. 기초 자원마련

- 중국정부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설립, 실크로드 기금 건설 등을 통해 실크로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11월 4일 중앙재정영도소조 8차 회의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계획’,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하 AIIB)¹⁰⁾’ 및 ‘실크로드 기금’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러우지웨이(楼继伟) 재정부 부장은 2014년 10월 24일 참가국들과 AIIB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국이 자본금 1,00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인 50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 AIIB 설립에는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및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ASEAN) 9개국 등 총 21개국이 참여할 예정임.
- 시 주석은 2014년 11월에 개최된 APEC 회의 중에 APEC 비회원 국가정상들과 회동을 갖고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 조성 계획을 공개함.
 - 실크로드 기금은 AIIB와 함께 해당 지역의 교통인프라 건설, 자원개발, 산업 및 금융 협력을 위해 집행될 예정임.
 - 기금의 재원은 중국의 외환보유고와 재정부, 수출입은행 등의 출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그 중 외환보유고가 전체 규모의 65% 이상을 차지함.
 - 2015년 1월 13일 중국 재정부는 2015년 6월 이전에 실크로드 기금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관련 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고, 금년 말에 정식으로 기금을 출범시킬 계획임.
- 북경 해상실크로드 투자자금관리센터(北京海上丝绸之路投资资金管理中心, 이하 <센터>¹¹⁾)는 해상실크로드 건설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상실크로드 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10)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11) 해상실크로드 투자자금을 관리하는 민간 펀드회사(私募基金公司).

- <센터>는 해상실크로드 은행 설립을 위해 50억 위안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해상실크로드 투자펀드를 설립하고,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이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임.
- <센터>는 또한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1,000억 위안을 모집하여 해상실크로드 연안에 있는 국가와 지역, 도시, 기업 관련 개발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계획임.

나. 중-아세안 협력과제 제시

- 중국은 아세안(ASEAN)과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협력과제들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9월 16일 광서회족자치구 난닝(南宁)시에서 ‘제 11차 중국·아세안 박람회’¹²⁾를 개최하여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새로운 협력기반 구축을 제안함.
- 장가오리(张高丽)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아세안의 협력 강화를 위해 △ 상호 신뢰 도모 △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활성화 △ 상호 교류를 위한(互联互通) 협력 강화 △ 해상협력 강화 △ 역내 협력 활성화 △ 인문교류 활성화를 6대 과제로 제의하였음.
- 2014년 11월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17차 중국·아세안(10+1) 정상회의에서도 해상실크로드 공동 추진을 위한 차관 제공을 약속하였음.
-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아세안 회원국에 20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약속했고, 이 차관은 아세안 회원국의 100억 달러 우대 차관과 중국의 국가개발은행이 설립해 회원국 인프라 구축에만 이용되는 100억 달러 차관으로 구성됨.
- 향후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위해 투자협력, 무역구조개선, 기술협력이 필요함.
- 향후 중국과 아세안은 △ 중국의 기술력과 아세안의 저가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투자협력 △ 고부가가치 상품을 아세안에 수출하고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하는 형태로 무역구조를 개선 △ 농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분야에서 기술협력이 필요함.

12) 2008년 중-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박람회. 매년 1회 난닝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사이에 투자유치 및 협력증진 도모를 위한 교역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 또한 사회간접자본 건설분야에서 금융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자간에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상호 교류(互联互通)를 심화시킬 것임.

다. 주요국 순방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9월에 몰디브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등 해상실크로드 거점인 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였음.
- 2014년 9월 15일 시주석은 유명관광지이자 석유 해상 운송의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양의 몰디브를 방문하여,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에 몰디브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 최근 중국은 몰디브 수도 섬인 말레와 인근 홀룰레 섬을 잇는 다리 건설 계획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몰디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2014년 12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몰디브 경제발전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중국·몰디브 경제무역위원회 공동추진 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和马尔代夫共和国经济发展部关于在中马经贸联委会框架下共同推进‘21世纪海上丝绸之路’建设的谅解备忘录)」를 체결

- ▶ 양국정부는 중국·몰디브 경제무역위원회(中马(马尔代夫)经贸联委会)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추진에 관련된 양국간의 무역투자 활성화와 관광 분야와 경제 및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

- 2014년 9월 16일 시 주석은 28년 만에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대형 프로젝트의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함.
- 시 주석은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20개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교통건설(中交集團)과 스리랑카 국가항만사무국이 공동으로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콜롬보 항구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표 2. 중국정부의 해외협력 추진 현황

주요 추진방안		대상국가	현황
기초금융 자금마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해상실크로드 은행 설립	해상실크로드 대상 국가	- 중국 정부가 대부분 출자금을 부담 - 각 은행들의 설립을 추진 중
중-아세안 협력과제 제시	〈제 11차 중국·아세안 박람회〉 〈제 17차 중국·아세안(10+1) 정상회의〉	아세안 가입국	-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위 한 6대 과제 제시 -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에 200억 달러 차관 제공 예정
주요국 순방	콜롬보 항구도시 조성사업 추진 〈중국·몰디브 경제무역위원회〉 활동 개시	남아시아 몰디브, 스리랑카	- 항구도시 조성에 14억 달러를 투자 ○ 무역투자, 관광산업 발전 등 의견교환

자료: 본문 내용 정리.

라. 주요 지방정부의 추진현황

■ 중국 각 지역에서도 「구상」의 실현을 위해 국제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광둥성 동완시를 비롯하여 푸젠성 취안저우, 샤먼 및 상하이 등지에게 각종 국제박람회와 포럼 개최, 잔장(湛江)-난닝(南宁)-하이커우(海口) 세관의 「협력각서」 체결 등 해상실크로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2014년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광둥성 동완(东莞)시에서 〈제 1회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국제박람회(第一届 21世纪海上丝绸之路国际博览会)〉가 개최되었음.

- 동 박람회에 우리나라, 인도 등 11개 국가의 15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경제무역 협력교류 부문에서 중국 국내외 6,000여 기업에서 90,000여 명이 참가하여, 451건, 1,747억 위안 규모의 사업 계약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우리나라는 전자·전자, 중소형 가전제품, 친환경 및 환경 보호 제품, 섬유 패션 제품, 완구 및 공예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위주 품목에 대한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참여하였음.
- 경제무역 협력교류 이외에 관광문화, 물류, 해운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협력도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등 6개 연안 국가들과 함께 관광분야의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참여하였음.

■ 2014년 11월 7일 푸젠성 샤먼(厦门)시는 「일대일로 건설전략 실행을 위한 행동방안(厦门市关于贯彻落实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建设战略的行动方案)」(이하 「행동방안」)을 제정하였음.

- 「행동방안」에서는 샤먼시의 과거 해상실크로드 교류에 참여했던 역사적인 경험과 유리한 교역조건을 바탕으로 기초설비 투자, 무역금융, 국내외 투자 활성화, 해양협력, 여행박람회 개최, 인문교류 등 6개 중점 협력분야를 지정하고 18개의 세부 사업안을 제정, 시행하기로 함.

- 기초설비 투자 분야에서는 샤먼 항구에 국제해운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육해공 3면에서의 교통 시설들을 확충하여 다른 연안 국가들의 항구들과 해운 네트워크를 더욱 밀접하게 형성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표로 채택함.
- 해양협력 분야에서는 기존의 샤먼 국제협력주간(厦门国际海洋周)¹³⁾과 샤먼 남방해양연구센터(厦门南方海洋研究中心)¹⁴⁾의 해양 어업분야 협력사업 등을 활용하고 나아가 중국-아세안(ASEAN)간 해상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어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의 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함.
- 기타 분야에서도 시 정부 차원에서 관련 재정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전개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2014년 12월 26일 광둥성 잔장(湛江), 광시장족자치구 난닝(南宁),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 세관은 서남 연해지역의 국제물류기지로써의 발전과 ‘광서북부만 경제구(广西北部湾经济区)’¹⁵⁾의 경쟁적 발전을 목적으로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협력각서」를 체결하였음.

- 3개 항구의 통관업무 협력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모색, 아세안을 비롯한 해상실크로드와 연계되는 해외 지역 국가들과의 수출입 물류 플랫폼 구축, 관련 협력체제 구축 등 6가지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우선 3개 항구 세관들의 세관감독 구역과 특수감독 구역에 대한 정보화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산업과 국제해운 시장 동향 및 녹색저탄소 항구 건설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함.
-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3개 항구의 수출입 규모는 5,83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8.1% 성장함.
- 해상실크로드 관련 국가들과의 교역규모는 전체 수출입 규모의 54%인 3,151.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27.6% 성장하였고, 그 중 아세안 국가와는 1,941.1억 위안에 달해 38.6% 성장하였음.

13) 중국 국가해양국(中国国家海洋局), 샤먼시 인민정부, 유엔개발계획(UNDP) 중국대표처(联合国开发计划署驻华代表处), 샤먼대학(厦门大学) 등이 2005년 공동으로 창립하여 해양문화제, 해양 정책 및 해양 과학기술 협력 등을 주제로 매년마다 개최하는 행사임.

14) 2012년 샤먼시 인민정부, 중국교육부, 중국 국가해양국, 샤먼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단체.

15) 광시장족 자치구 난닝(南宁), 베이하이(北海), 진저우(钦州), 광청강(防城港), 위린(玉林) 등 6개 지방을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계획의 일환인 「광서북부만경제구 발전계획(广西北部湾经济区发展规划)」에 따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지구의 명칭.

■ 2015년 1월 19일 상하이 해양대학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상하이포럼, 21世纪海上丝绸之路上海论坛>이 개최되었음.

- 포럼에서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에서 상하이의 기회와 도전' (21世纪海上丝绸之路建设中上海的机会与挑战)을 주제로 논의함.
- 중국 국내외 100여 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 및 정치계 인사들이 모여 해상실크로드의 역사적 연원과 해상안전 및 상호신뢰 협력, 중국의 해양 전략,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립 등의 의제들을 논의하였음.
- 또한 참석자들은 상하이 지역이 「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였음.
- 청위동(程裕东) 상하이해양대학 총장은 상하이가 가진 지리적 장점과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등을 토대로 해양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2015년 2월 3일 중국문화매체그룹(中国文化传媒集团, China culture media group)은 중국 공상은행 푸젠성 지점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공상은행은 중국문화매체그룹이 푸젠성(福建) 핑탄다오(平潭岛)의 '중국해양문화센터(中国海洋文化中心)', 푸저우 자유무역지대(福州自贸区)의 '해상실크로드 예술구(海上丝绸之路艺术区)' 등 성내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50억 위안을 지원하기로 함.
- '중국 해양문화센터' 개발 프로젝트는 용지면적 180.5묘(亩)(약 120,000㎡), 건설면적 33.5㎡의 프로젝트로써, 대형 공연센터, 국제 예술품교류센터 등 국가급 문화시설들이 건설될 예정임.
- '해상실크로드 예술구' 개발 프로젝트는 50만㎡, 용지면적 500묘(亩)(약 333,500㎡)의 프로젝트로써, 해상실크로드 예술관, 공연센터 등이 건립될 예정임.

■ 2015년 2월 5일 장쑤성 난통(南通)시에서 <2015년 해상실크로드-난통시 대 아세안 국가 비즈니스 상담회(2015海上丝绸之路-南通与东盟商机对接会)>를 개최함.

- 장궈화(张国华) 난통시 시장은 상담회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선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난통시의 주력산업인 선박제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함.
- 향후 아세안 국가들과 해운 통관, 항구 개발 및 운영관리, 해운업 자료 및 데이터 상호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희망함.
- 또한 난통시는 건축업 분야에서도 아세안 국가들과 EPC,¹⁶⁾ PPP¹⁷⁾등의 방식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에 적극 협력할 예정임.
- 장쑤성 인민정부와 아세안 상무이사회는 이번 상담회에서 「협력각서」를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16)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지칭함. 일괄수주를 의미하는 턴키(turn-key)와 유사함.

17) Public-Private Partnership, 개발도상국에 개발지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접근 방식.

표 3. 주요 지방정부의 추진 현황

시기	장소	추진현황	주요내용
2014년 10월 31일 ~ 11월 2일	광둥성 둥완	〈제 1회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국제박람회〉 개최	- 국내외 6,000여 기업 9만여 명 참가 - 451건, 1,747억 위안 규모 계약 성사
2014년 11월	푸젠성 취안저우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즈니스 협력 원탁회의〉 개최	- 싱가포르, 스리랑카, 네팔 등 12개 국가와 지역의 상회, 대사관, 영사관, 무 역기구 대표들이 공동으로 ‘취안저우 제 안서(泉州倡议书)’를 발표
2014년 11월 7일	푸젠성 샤먼	「일대일로 건설전략 실행을 위한 행동방안」 제정	- 기초설비 투자, 무역금융, 국내외 투자 활성화, 해양협력, 여행박람회 개최, 인 문교류 등 6개 중점 협력분야, 18개의 세 부 사업안 제시
2014년 12월 26일	광둥성 잔장, 광서장족자치구 난닝, 하이난성 하이커우	세 항구의 세관들이 「협력각서」 체결	- 상호 경쟁적 협력을 위한 6가지 협력방안 명시 - 관련 정보 교류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2015년 1월 19일	상하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상하이포럼〉 개최	-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에서 상하이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토의
2015년 2월 3일	푸젠성 일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협약 체결	- 공상은행과 중국문화매체 그룹이 양자협약 체결 ○ 중국해양문화센터 및 해상실크로드 예술구 개발 프로젝트 등에 50억 위안 지원
2015년 2월 5일	장쑤성 난통	〈2015년 해상실크로드-난통시 대 아세안 국가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아세안 국가들과 선박제조업 및 건설업분 야에서의 협력 희망 - 「협력각서」 체결

자료: 언론매체 참고 필자작성.

3. 향후 과제 및 전망

가. 향후 과제

- 향후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각 국가간의 복잡한 국제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토분쟁을 해결해야 함.
- 관련 국가들과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 해상자원의 공동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

력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불필요한 역내 긴장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인도와의 국경분쟁 문제를 해결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이 필요함.
 -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이 성공하려면 인도와의 국경분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다만 현 인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 상태이므로 조속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취싱(曲星)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소장도 인도가 중국이 언젠가 자국의 남아시아 핵심대국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품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경분쟁 문제 해결을 토대로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함.
-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재균형(Rebalancing) 전략과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정부가 설립되어야 함.
 - 남 수단 문제, 시리아 및 이라크의 장기 내전, 아프가니스탄의 정정 불안 등 지역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소말리아 해적 등 인적·물적 교류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있음.

■ 중국은 항구 등 해운업 관련 인프라 설비가 낙후되어있고, 중국 해운업의 경쟁력이 빈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됨.

- 선진국의 해운회사들과 비교시 중국 해운회사들은 경쟁력이 약하고, 기업관리 역량이 취약하며 관련 정보 기술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해양 신기술 개발 및 개발 인력 양성이 지체되고 있고, 다른 연계산업과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이 미약함.
- 또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실현'이라는 명목하에 각 지방정부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를 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함.

나. 향후 전망

■ 해상실크로드는 관련국들 사이의 높은 상호협력 가능성, 동아시아 국가간 생산 분업 네트워크 및 저렴한 해상운송비에 기초한 비교우위 등을 이유로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중국과 관련국들의 무역총액이 12,217억 달러(남미 제외)에 달해 중국 전체 교역액의 42.6%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전문가들은 「구상」의 실현이 중국의 국익 신장과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번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리티엔궈(李天國)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전략연구원 보조연구원은 「구상」이 연안 국가들의 경제 협력과 상호관계를 밀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럽 및 아시아 경제무역 통로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함.
- 린이푹(林毅夫)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해상실크로드 연안의 많은 국가들은 풍부한 석유와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함.
 - 중국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전략에 따라 비교적 좋은 국제무역 여건을 마련한다면 향후 인근 국가들도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천잉밍(陳英明) 중국 항만협회 부회장은 「구상」의 실현을 계기로 상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베트남의 다낭 등 아세안 지역의 주요 항구들이 무역 분야에서 새로운 허브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함.
 - 선진국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들에 제조업 시설을 이전하여 중국보다 값싼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상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관청여우(管清友) 민생증권 연구원 부원장은 「구상」과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아우르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을 통해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중국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평가함.
 - 관련국에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 기초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예상함.
 - 또한 수많은 산업과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무역거래를 통해 과잉생산을 소진(消盡)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 한편, 중국 역내 각 국가들이 역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 한다면,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각국의 경제성장의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공동 번영하자는 「구상」의 본래 의의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참고자료>

- 『新华网』.2013. 「习近平:中国愿同东盟国家共建21世纪“海上丝绸之路”」.(10月3日)
- 『国际贸易』.2014. 08. 「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战略构想与建设方略」.
- 『东方早报』.2014. 「“21世纪海上丝绸之路”并非要恢复“华夷秩序”」.(5月6日)
- 『国际商报』.2014. 「新丝绸之路促进上合成员合作」.(9月2日)
- 『国际商报』.2014. 「海上丝路新航向:“合作之舟”再启航」.(9月15日)
- 『国际物流报』.2014. 「海上丝路:热潮涌起 挑战不少」.(9月19日)
- 『经济日报』.2014. 「复兴丝绸之路 共建和谐周边」.(9月20日)

- 『南方日报』.2014. 「广东21世纪海上丝绸之路国际博览会闭幕」. (11月 3日)
- 『澎湃新闻』.2014. 「调查与研究“海上丝绸之路”的21世纪新构想」. (11月 10日)
- 『中国广播网』.2014. 「一路一带获金融支持 海上丝绸之路银行正筹备」. (11月 13日)
- 『观察者网』.2014. 「李克强出席东亚峰会 中国向东盟提供200亿美元贷款支持互联互通」. (11月 14日)
- 『CNBC』.2014. 「New Silk Road' highlights China's two-speed reform」. (11月 17日)
- 『新华网』.2014. 「中马签署共建“21世纪海上丝绸之路”谅解备忘录」. (12月 17日)
- 『经济日报』.2015. 「“三关四港”共促环北部湾经济一体化」. (1月 7日)
- 『新华网』.2015. 「福建打造“21世纪海上丝绸之路”重要枢纽」. (1月 15日)
- 『第一财经日报』.2015. 「一带一路规划亮相在即」. (1月 20日)
- 『新华网』.2015. 「21世纪海上丝绸之路上海论坛在沪举行 专家强调“上海使命”」. (1月 20日)
- 『和讯网』.2015. 「美国为何对中国的“一带一路”疑虑重重?」. (1月 22日)
- 『人民网』.2015. 「工商银行授信50亿支持福建海上丝绸之路文化产业」. (2月 4日)
- 『中国新闻网』.2015. 「江苏南通借“21世纪海上丝绸之路”对接东盟商机」. (2月 5日)
- 『CNBC』.2014. 「New Silk Road' highlights China's two-speed reform」. (11月 17日)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양한수<ubzz284@hanmail.net>